

종합·해설

“지역 건설사 부도 세무조사 탓 아닌가”

국회 재정위 광주지방국세청 국감

“나주세무서 직원 해임 과도한 대처”

14일 진행된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광주·전남 상위 건설사들의 잇단 부도에 대해 특정지역에 세무조사가 집중된 탓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나주세무서 직원의 해임, 고발과 관련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부비판을 견디고 수용해 내부로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지역건설사 세무조사 집중 의혹”=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대비 법인세 비율이 27% 정도 감소한 것은 법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처럼 크게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중추인 광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는데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뤄진 같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광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잇단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무조사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건설업체에 집중된 탓 아니냐”며 “호남지역을 겨냥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것에 대해 분청과 합의,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는지 의혹과 오해를 풀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이 지역 건설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지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임 청장이 몸으로라도 막아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소상히 알리는 정책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정기적 신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뤄지고 교차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실수는 관대, 내부 쓴소리는 강경”=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나주세무서 김동일 직원이 국세청 발전을 위한 비판을 한 것인데 광주청은 파면, 형사고발 등 과도한 대처를 했다. 이같은 광청의 행동은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며 “내부비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통해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훈 한나라당 의원은 “정읍세무서에서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동명이인의 부동산을 잘못 압류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해당 직원은 주의 처분만을 받았다”며 “국세청 내부 비판에는 파면이라는 극한 대처를 하면서 국세청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4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박근혜 호남서도 인기 실감

국감차 3년만에 방문… 사진 요청·사인공세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광주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지난 2007년 11월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지원유세 이후 약 3년 만에 호남을 찾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관심이 쏠렸다.

광주 공항에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고 국감장에서 질의할 때에도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집중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공항에 나온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을 보고 “박 전 대표가 호남에 세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차기 대선에서) 표를 그쪽으로 찍으면 안돼”라고 조크도 던졌다는 후문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국감장 옆 휴게실에서도 박 전 대표에 대한 국세청 직원들의 사인 요청과 대학생이 중심이 된 NGO 모니터단의 사진촬영 요청이 이어졌다고 동행한 한나라당 기재위원들이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국감장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한 채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박 전 대표는 “광주 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저소득층을 위

한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수혜 대상으로 안내한 가구 수가 10만8000가구인데 신청한 가구는 11만 가구였다”며 “안내 대상보다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빠진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신청자들은 40~50대 연령층이 88.5%에 달하고 건설업종 종사자와 광주의 사·복합주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몰라서 제외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므로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사들의 식사 요청에 양해를



구한 박 전 대표는 동료 기재위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지역업체 영산강사업

참여 비율 극히 저조

영산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14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사업의 호남권 업체 참여비율은 원도급 공사액 기준으로 34.2%에 불과했다. 올 사업비 2334억 6700만원 중 800억1600만원만 지역업체가 발주를 받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남지역 업체가 28.8%(673억7100만원), 전북 업체는 5.4%(126억 4500만원)를 차지했다.

하도급의 경우 더욱 심각해 전체 1880억1400만원 중 25.6%인 572억9100만원만 호남지역 업체에 배분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당한 국토부 장관은 수차례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향을 밝히왔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대형 건설사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순천 화상경마장

영구중단 바람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5일 제주경마본부에서 실시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순천 마권장 외발매소(화상경마장) 추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순천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경마장사업체 관계자가 뇌물증여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영구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장외발매소 허가 신청요건을 강화,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지역주민의 동의를 법제화했는데 순천 장외발매소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기관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孫 지지도 상승 견제 나섰나

정동영 당직인선 불만 토로

새신연대 “일방통행 안된다”

민주당 순학규 대표의 상승세를 견제하는 당내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당장, 당직 인선과 맞물려 꺾임 인사 효과보다는 당내의 현실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손 대표에게 석패한 정동영 최고위원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국감을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그는 출국 후인 지난 11일 사무총장 임명 등 주요 당직인선이 단행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 측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최고위원들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인사는 대표의 전횡”이라고 비난하면서 “흔사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앞으로 누구에게서 협력과 협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도 “김영춘 최고위원과 이철우 수석 사무부총장 등의 임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과거 대표 시절의 ‘나 홀로 결정’ 현

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비주류 연합체인 ‘새신연대’도 당직 인선에 대해 ‘일방통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새신연대 핵심 인사는 “새신연대는 지도부 내부의 최대 계파”라며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판과 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새신연대에는 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이 속해 있다.

반면, 정세균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말을 아끼며 손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취임 보름도 안 된 순학규 대표에 대해 당내의 견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그의 지지를 상승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예비대 권후보인 손 대표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 두 배 가량 뛰며 10%대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순학규 대세론’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차기 당권과 총선 구도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

“4대강 홍보 중립성 훼손”

법사위·한노위 국감서 지방환경청장 질타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최근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은진수 위원에서 다른 위원으로 바뀐 것을 놓고 여당은 ‘독립성 훼손’이라고, 야당은 ‘감사결과 발표 지연전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야당이 수개월간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감사원과 은진수위원을 혼돈 결과, 감사원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외압에 의해 주심위원이 교체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교체를 통해 (감사 발표까지) 시간도 끌고 국정감사 불타기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목과 알먹고’ 전략 아니냐”며

“권력에 눈치만 보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인식됐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은위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4대강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압박했다.

환경노동위의 한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방이 잇따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방 환경청장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기고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홍보했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으로서의 객관성·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한강과 관련된 4대강 사업 의혹 보도 20건 중 4건만 일부나 전부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권의 무분별한 공세 차단 시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직도 부동산 경매하십니까?

호남최초! 부실채권전문가의
— 서울에서 전문교수 초청 —

교육원의 교육목적

- 국내최초 부실채권 실천전문가과정
- 새로운 투자방법으로 돈버는 부실채권
- 안전하고 수익을 높이며 투자기간이 짧은 6개월이내 최고 재테크
- 국내유일 자산유동화채권 강의로 부자되는 법
- 개인이 소액투자로 부실채권 매입하는 방법

무료공개강좌

일시 2010년 10월 16일(토) 15시

개강일 2010년 10월 23일(토) ~12강

법인대한경매교육원 062) 226-3600
(동구 학동 891-8 금호정재식당 옆 은석빌딩3층) 017-613-1808

전남·북시군지시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 시외·시내 출장전문
★ 체육대회·야유회
★ 식탁·의자 무료지원
★ 연회장 주차장 원비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

6년근 홍삼 활정원 活精源

아침 저녁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과 함께 드십시오!!

어울림 참살이터에서는 공진단, 우황청심환과 함께 중국황제에게 진상되던 3대 비약중 하나로 정기(正氣)인 생명의 약조전 속에서도 항상 건강을유지했던 비결이라고 전해지는 경육고를 업그레이드한 6년근 홍삼 활정원을 다문화가족과 함께 정성껏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육고는 동의보감에 4,000여종 이상의 처방 가운데 가장 가치있는 수목된 제1처방으로, 양생연년약이권(養性延年藥餌篇, 건강하고 오래 살게하는 약)에 실려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타난 효능을 보면 [경육고는 정(精)과 수(髓)를 채워주고 진기를 고르게 하며, 원기를 보하여 노인을 젊어지게 하고, 모든 허손증(虛損證)을 보하며 온갖 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또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 나오며,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이 빨라 집니다. 하루에 두세번씩 먹으면 종일토록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울림 참살이터 이야기

어울림 참살이터에서는 이주여성들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세계적 명차 6년근 홍삼 활정원 (경육고 류)를 배워 만들어 판매하면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함께 이루어 나가려 합니다.

일반교육생모집 (10주)과정 (직장인, 일반인)

▶경육고 학교: 4회	매일 첫째주 토요일 10:00~15:00	월 회비: 100,000
▶전통차(보이차, 말차, 녹차): 4회	매주 화요일 10:00~13:00	1회 일반회원: 30,000
▶비리스타(커피이머지): 4회	매주 금요일 10:00~15:00	

농협 301-0062-9920-11 사) 어울림다문화센터 ☎062)676-8877 Fax.655-7009
주소: 광주시 남구 봉선동 999-1

농협 301-0062-9920-11 사) 어울림참살이터
운영자: 김인숙 · 목포과학대학 사회복지교수, 어울림다문화 센터장